소비자-업체-지자체 연결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

강원 에코 홈페어 2012-주택건설건축박람회 29일 개막

오는 29일부터 12월2일까지 나흘 동안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리는 '강원 에코홈페어 2012-주택건설건축박람회'에 관련 업체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강원건설단체연합회와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도와 춘천시 등 18개 시·군이 후원하는 것으로 지역 주택·건설·건축 관련 모든 제품이 한자리에 전시됨에 따라 업체와 소비자, 업체와 지자체 간 연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 일반 주민들의 경우 홈인테리어 기자재 및 가구와 실내 인테리어, 전원주택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 내 집을 꾸미는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시회 대상품목 다양

강원 에코 홈페어 2012-주택건설건축박람회는 도내 최고의 주택 관련 종합 전시회로 열린다.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와 대상품목은 다양하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주택환경을 조성하고 도내 주택·건설업계에서 생산하는 주택 소품 및 인테리어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뤄진다.

강원 에코 홈페어는 도내 유일의 주택·건설·건축 박람회로 녹색성장의 중심, 강원도의 녹색건설 및 건축자재 소개의 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출품대상 품목은 △건축자재(바닥재·내장재·지붕재·외장재·구조재·도장재·방수·단열재·방음) △가구 및 인테리어(인테리어 가구·생활가구·사무용 가구·전통가구·DIY가구·사물함·가구 하드웨어·벽난로·침장류·블라인드·스크린·인테리어 소품) △전원주택 및 주택정보 분야(목조주택·스틸하우스·펜션·모델하우스·실외 리모델링) △생활가전 및 디지털 홈 분야(가전·도어록·홈시큐리티·홈네트워크시스템) △조경 및 공공시설 분야(실내 조경·잔디·펜스·정자·놀이시설·수목보호대·옹벽) △욕실 및 주방 분야(위생도기·욕조·샤워기·샤워부스·욕실가구·스토브·사우나부스·시스템부엌가구) 등이다.

지난해에는 각 부스에서 진행된 상담만 총 3,500여 건에 달했으며 현장에서 이뤄진 거래는 1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상담실적까지 포함하면 수십억원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기회를 통해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지역 제품도 수도권 제품만큼 우수하고 기술력도 갖췄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호반체육관, 강원대 등에서 열려

도내 우수 주택·건설·건축 관련 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박람회는 29일부터 나흘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단순히 제품을 나열해 안내하는 식이 아니라 각종 부대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발전시킨다.

우선 메인행사인 박람회는 29일부터 나흘간 호반체육관에 마련된다. 강원지역 최고의 주택·건설·건축 종합 전시회의 명성에 맞는 △건축자재 △전원주택 및 주택정보 △홈 인테리어 기자재 △건설장비 및 공구 △가구 및 인테리어 등 각 분야의 업체들이 특색 있는 각각의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치단체의 관광, 농특산물 등을 전시할 수 있는 홍보관도 운영돼 효과가 크고 각 지자체의 주력사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막식 다음 날인 30일에는 도내 지역내총생산(GR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산업인 건설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강원건설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이 강원대 국제회의실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40여개 업체 참가 및 관심

강원 에코 홈페어 2012는 지난해 관람객이 연인원 1만명에 육박하면서 2년 연속 성공적으로 개최, 지역 주택·건설·건축업계 홍보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내년도 관련 업계의 모든 제품을 한곳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열렸던 강원에코홈페어에서 참가업체 대표가 소비자에게 제품 홍보 및 설명을 하고 있다.

평균 관람객 1만여명 방문
친환경 건설·제품 선보여

관련업체 참가 신청 줄이어
심포지엄·농산물관 등 풍성

현재 강원에코홈페어조직위원회 사무국에는 주택·건설·건축 관련 신기술과 신공법, 신제품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홍보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업체들의 참가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여개 업체가 박람회에 제품을 전시·출품하겠다는 연락을 해 왔고 또 다른 10여개 업체에서 참가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다양한 업종의 관계자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강원 에코 홈페어 2012-강원주택건설건축박람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와 건설·건축 관련 종사자의 신청은 물론 일반 주민들의 관람 문의가 이어지면서 전시 기간인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최대 1만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 박람회 참여업체 /

고효율 LED 조명 제조 에너지 절감 앞장

원주 (주)이엔씨파워

(주)이엔씨파워(대표:이미라·사진)는 지난 2008년 원주시 태장동 태장농공단지에 자리를 잡고 창립과 더불어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으로 등록해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범정부적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대책에 맞춰 도내는 물론 경기·대전 등지에서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기 교체사업을 포함한 에너지 절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고효율 LED 조명기기를 직접 제조 및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통한 녹색에너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직관형 LED 램프 △가로(보안)등 기구 등이다.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는 기존의 등기구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소비전력은 70% 이상 절감하고, 효율은 78% 이상 향상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직관형 LED 램프는 기존의 형광등기구를 재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LED 형광램프로 소비전력은 줄이고 효율은 105% 이상 향상시킨 제품이다. 가로(보안)등기구는 고효율 반사판이 내장돼 있어 80% 이상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각도 조절 및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는게 장점이다.

이미라 대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도내 유일한 에너지 절약사업 전문업체로서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시민들에게 LED 홍보를 비롯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내 최초·최고 기술력 벤딩 전문업체

원주 신일벤딩

신일벤딩(대표:김세종·사진)은 지난 1990년 도내 최초 벤딩 전문업체로 문을 열었다.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의 약 2,000㎡ 대지에 최신 기계식 설비를 갖춘 공장으로 조달청 납품업체로 등록돼 있으며 도내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알루미늄 샤시·스테인리스 파이프·앵글·평철 철판 등의 벤딩(Banding) 사업, 강화유리의 약 150배 이상의 충격도를 지니고 있어 유연성 및 가공성이 우수한 열가소성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버스 승강장·연결통로·자전거 보관대 등에 쓰이는 캐노픽스(Canofix) 등이다.

특히 빗물 재활용 차양은 국내를 비롯해 국제

특허로 등록돼 있는 제품으로 올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보다 앞서 지난해에는 서울 국제발명전시회에서 금상을 받은 제품이다. 이 제품의 특징은 공사현장에서 용접이나 실리콘 사용 없이 조립 시공이 가능해 자전거 보관대, 연결통로, 재활용 분리수거장, 재래시장 비가림시설 등 단일제품으로 간편한 시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김세종 대표는 "농가주택, 펜션, 원룸 등에서 캐노픽스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현재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강원 에코 홈페어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생각이다"고 말했다.

홍현표기자

【2012. 11. 22(목) 강원일보】 - ①

◇정동기대한건설협회도회장은 22일 오후6시 춘천시 퇴계동의 한 음식점에서 춘천·화천·양구·철원지역 회원사와 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논의.

태백시 내년 예산 2,479억여원 편성

【태백】2013년도 태백시 예산이 2,479억여원으로 2012년의 2,450억여원보다 1.2%인 29억여원이 증액 편성됐다.

김연식 태백시장은 21일 오전 11시 열린 제19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예산안을 제안 설명하며 지역 간 균형개발 등에 노력하겠다는 시정 방침을 밝혔다.

김 시장에 따르면 오는 2013년 예산은 분야별로 지역 간 균형개발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404억여원 복지문화 등 사업에 797여원이 집행된다.

또 지방채 상환에 213억여원 공공질서 등 분야에 213억여원이 지출되며 예비비는 491억여원이 계상됐다.

한편 2013년 기준 시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31.4%, 지방재정 자주도는 78.4%가 되며 주민 1명당 부담세액은 31만4,000원으로 예상됐다.

장성일기자 sijang@kwnews.co.kr

내년도 예산 6,278억원 편성

【강릉】강릉시는 내년도 당초 예산 규모를 올해 6,062억원보다 3.6%(216억원) 증가한 6,278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5,304억원으로 올해 5,141억원보다 3.2%(163억원), 특별회계는 974억원으로 올해 921억원보다 5.7%(53억원)씩 각각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내국세 증가 등에 따른 지방세 6억원, 세외수입 18억원, 교부세 138억원, 국도비 보조금 1억원이 늘어났다.

시는 세출 예산은 지역경기 활성화, 서민 일자리 창출, 초·중학교 무상급식 등 교육비 지원 확대, 사회복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농·축·어업 지원 사업, 보육 및 청소년 분야,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로사업 등은 신규 사업을 가급적 배제하고 마무리 위주와 민원해소사업에 역점을 두고 포스코 옥계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원,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 등 산업 인프라 확충과 각종 재해 재난 예방사업,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 사업에 투자를 확대했다. 또 2015년 전국체전,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기틀 마련에 필요한 분야별 사업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 고달순기자

양구군 내년도 예산 2,300억원 편성 … 경기활성화·생태자원 정비 역점

【양구】양구군이 2013년도 당초 예산을 올해보다 7.7% 증가한 2,300억원으로 편성에 양구군의회에 제출했다. 총 예산 규모는 2,300억원이며 일반회계가 1,976억원으로 올해보다 4.6%, 특별회계는 324억원으로 32% 증액 편성됐다.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전창범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직원들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사업 추진 당위성과 지역 실정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도 주요 사업은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을 비롯해 박수근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녹색나눔숲 조성, 전통예절교육관 건립, DMZ 병영체험장 조성,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등이다. 특히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생태하천 정비 등 지역개발사업에 편성했다. 심은석기자

【2012. 11. 22(목) 강원도민일보】

양구군 내년 예산 2300억

올해보다 7.7% 증가

양구군은 내년 예산을 23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군은 2013년도 당초예산을 올해보다 7.7% 증가한 2300억원으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내년 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4.6% 늘어난 197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2%가 증액된 324억원이다.

일반회계 가운데 세입예산은 △지방세 63억원 △세외수입 236억원 △지방교부세 1004억 △재정보전금 16억 △국·도비보조금 656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재난·교육분야 214억원 △문화관광분야 205억원 △환경분야 105억원 △사회복지 보건분야 229억원 △농림산업 경제분야 346억 △도로·교통분야 9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06억원 △예비비 30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75억원 △도시개발 54억원 △수질개선 148억 △하수도사업 19억원 △의료보호 7억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3억원 △주택 및 기반조성사업 6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군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 10%를 축소, 지역경기활성화와 생태하천 정비, 통합상수도, 흙탕물저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다.

내년 주요 사업은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 △박수근100주년 기념사업 △전통예절교육관 건립 △DMZ병영체험장 조성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으로 계획됐다.

김용기 군 예산담당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집행과 운용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양구/김정호 kimpro@kado.net

원주시 내년 예산 7821억

올해보다 4.6% 증가

원주시가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원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올해보다 4.6%(345억원) 증가한 782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447억원으로 9.9%(579억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374억원으로 14.6%(234억원) 감소했다. 일반회계 규모가 증가한 것은 신규사업인 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430억원 가량 증가했으며, 특별회계 감소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등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국비 및 한강수계기금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국비·기금 지원 감소에 따른 것이다.

원주시는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인한 필수경비 증가와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가중돼 가용재원이 감소, 내년도 경상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긴축재정을 원칙으로 신규사업 추진을 최대한 억제하고, 문화체육공원 및 홍수조절지댐 건설 등 필수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시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는 성 평등한 재원배분을 위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性認知) 예산서'가 추가됐다.

한편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사회복지 분야가 1775억원(27.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94억원(13.87%) △환경 보호분야 616억원(9.55%) △문화 및 관광분야 453억원(7.03%) △일반 공공행정분야 361억원(5.6%) △예비비 및 기타 분야(15.65%) 등으로 편성됐다.

원주/박경란 lany97@kado.net

◇정동기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22일 오후6시 춘천시 퇴계동의 한 식당에서 춘천,화천,양구,철원지역 회원사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

속초시 내년 예산 2769억

올해보다 4.8% 증가

속초시의 2013년도 당초 예산이 올해보다 4.83% 늘어난 276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속초시는 21일 새해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 2641억원보다 128억원 증가한 2789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새해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는 2043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927억원보다 116억원(6.02%)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726억여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714억원 보다 12억여원(1.63%)이 늘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 402억원(19.67%), 지방교부세 894억원(43.77%), 재정보전금 70억원(3.43%), 국·도비 보조금 677억원(33.14%) 등이다. 일반회계는 세출은 △일반 공공행정부문 187억원(9.1%) △교육부문 38억원(1.9%) △문화·관광·보건·사회복지·환경부문 966억원(47.3%) △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도로교통 부문 461억원(22.6%등이다.

속초/김창삼

고성군 내년 예산 2479억

올해보다 4.5% 증가

고성군의 내년도 당초예산이 올해에 비해 4.5%, 107억원이 증가한 2479억여원 규모로 편성됐다.

군은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를 일반회계 2285억원, 특별회계 194억원 등 2478억6795만원으로 편성, 21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예산안은 올해 2372억원보다 4.5%가 증가했으며, 지방세, 세외수입을 비롯해 지방교부세와 도비 보조금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농림해양수산,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등 경제분야가 전체예산의 31.7%인 725억원을 차지하고, 복지, 보건, 환경보호, 교육, 문화관광분야 등 주민 삶의 질 향상분야에 45.9%인 1049억원이 편성됐다. 또 일반공공행정과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분야에 6.9%인 159억원, 공무원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등에 15.4%인 352억원이 편성됐다.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6.6%가 증가한 195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고성/남진천

강릉시 내년 예산 6278억

올해보다 3.6% 증가

강릉시가 내년 당초예산을 6278억원으로 편성, 오는 26일부터 정례회에 들어가는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6062억원보다 216억원(3.6%)가 증액된 것이다.

일반회계는 5304억원으로 올해 5141억원 보다 163억원(3.2%), 특별회계는 974억원으로 올해 921억원에 비해 53억원(5.7%)가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내국세 증가 등에 따른 지방세 6억원, 세외수입 18억원, 교부세 138억원, 국도비 보조금 1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강릉시는 이 예산을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서민 일자리 창출, 초·중학교 무상급식 등 교육비 지원 확대, 사회복지 확충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농·축산과 어업지원 사업, 보육·청소년 분야,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활용키로 세출예산편성 방향을 수립했다.

특히 도로사업 등은 신규사업을 가급적 배제하고 마무리 위주와 민원해소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포스코 옥계산업단지 조성 지원,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 등 산업인프라 확충과 각종 재해·재난 예방,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 사업에 투자를 확대했다.

또 2015년 전국체전과 2018년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에도 예산을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상 및 투자사업비에 대해 5~10%의 예산절감을 통해 50억원을 절감하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고강도 징수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산절감과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명희 시장은 "전시민을 위한 사업에 균형투자 되도록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저비용 고효율 사업에 예산이 활용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기반이 착실히 다져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릉/최동열 dychoi@kado.net